

열방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산M센터 20주년'



사진은 2025 이주민 연합세례식.

연합예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이주민 연합세례식 이재훈 위임목사, 김태완 목사, 이주민 등 580여 명 참석

안산 온누리M센터가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지난 8월 10일(일) 안산M센터에서 개최했다.

오전 11시 안산M센터 연합예배, 오후 3시 안산M센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김태완 목사(M센터

담당), 김창욱 전도사, 온누리M센터 리더십 및 봉사자, 이주민 성도 등 5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열방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산M센터가 20년 동안 이어온 이주민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M센터 연합예배는 20주년 특별 영상, 축복의 시간,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이어졌

다. 설교는 김창욱 전도사(안산M센터 초기 담당)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제로 했다. 김 전도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며 이주민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권면했다.

안산M센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주민 형제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에서는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의 10개국에서 이주해 M미션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주민 4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은 곧 있을 2025년 추석 Harvest 이주민 연합수련회를 통해 이주민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벌써 여름 아웃리치 종반!

국내외 320개 팀 6,438명 참가

202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벌써 종반(終盤)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국내외 320개 팀, 6,438명이 참가했다(8월 13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춘천, 남양주, 제주, 태안 등지에서 군 장병 초청 잔치, 마을 및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마을 미화 작업 등을 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선교사 위로와 교제, 의료 사역, 어린이 캠프, 교회 보수 작업 등을 했다.

황백운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는 "선교지에서 느낀 사랑과 기쁨을 잊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상기 팀장(과천의왕공동체)은 "선교 현장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관련 기사 5면).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일)까지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에서도 아웃리치 간증문을 모집한다. / 홍하영 기자

차세대 여름사역 종료!

말씀과 기도 풍성한 방학 마무리

차세대가 여름사역을 종료했다. 7월부터 이어진 '차세대 여름 캠프'가 8월 10일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자라는 땅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교회와 외부에서 성경 암송, 기도회, 적용 놀이, 체험 활동 등을 했다. 파워웨이브는 'His Plan'을 주제로 외부 수련회장에서 찬양 집회, 강

의, 기도회 등을 했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도 8월 16일까지 이어졌다.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QT 교재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총 24회 QT를 했다. 네 번은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QT'를 했다. 문의: 02-3215-3521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9월 1~2일, 양재 9월 2일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즙을 담근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9월 1일(월)과 2일(화) 본관 지하 1층 교회 식당에서, 양재온누리교회는 9

월 2일(화) 지하 2층 교회 식당에서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 양재온누리교회 권사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가 참여한다. 이 기간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433(양재)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믿음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상반되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라”(사 46:9)고 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기억하지 말라”(사 43:18)고 합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연연하는 것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 죄악의 습관들을 비롯해서 기억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진정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기억과 중요한 관계

믿음은 기억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깊이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나쁜 기억들은 깊이 간직하고, 깊이 간직해야 할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뇌의 물리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기억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 기억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후회란 무엇입니까? 쓰러린 기억입니다. 죄

책감은 절망적인 기억입니다. 감사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기억입니다. 이 기억의 치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요단 강을 건너 뒤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강이 마른 뒤에 요단 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와 길가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는 경험에서 그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부터 미래를 열어가고, 과거를 새롭게 하는 기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미래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강을 건너온 뒤에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잘 아십니다. 단지 기억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상처입고 억울한 일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가득하면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교만이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 의식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의식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가 헛벗을 때에 내가 나를 위해 옷을 입혀주었고 굶주릴 때 먹여주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먹여드렸고 입혀드렸습니까?”라고 합니다.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배운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하게 행한 선한 일을 평생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

여호수아 4:1~7, 19~24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현재의 믿음,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

여호와께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 열두 명에게 요단 강 한복판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8-9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열두 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열두 개를 세워두었다”고 말합니다.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열두 개를 세워두었다고 했는데, 20절을 보면 ‘길가’에 열두 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곳 모두에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너희는 요단 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목을 곳에 두라”입니다(3절). 그래서 길가에 열두 돌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9절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요단 강이 마른 그 한복판에도 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세워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돌을 취한 자리까지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그 강 바닥에서 취해서 오늘 밤 목을 곳, 길가에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그것을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서있던 곳에서 돌을 취한 순간 여호수아는 그 자리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돌을 취한 자리에서 돌무더기를 여호수아 주도하에 열두 개를 또 세운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기까지 세웠느냐?”고 책망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여호수아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도 기억하고 싶어서 세웠다고 보면 서로 모순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 몇 개냐 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믿음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념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사형틀을 상징으로 삼겠습니까? 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지, 실제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에서 죽음은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인생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비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기념비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십자가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십자가가 기념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기념비를 세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과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24절 말씀에 왜 이 돌들을 세우도록,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너희 자손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전 12:1~2).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열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기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기억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이 사회가 준 기억이든 잘못된 기억이 젊은이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적은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과천의왕공동체

태국

지난해 미얀마 아웃리치를 준비했는데, 현지 정치 상황 악화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 이후 1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동체에서 올해 여름 아웃리치 장소로 태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아웃리치 준비를 시작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조만복·이근원 선교사 부부가 선교동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과천의왕공동체와 책임선교사로 연결돼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있다. 그들은 치앙마이에서 'METC(Mission English Training Course)'를 운영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영성, 공동체 훈련, 영어, 타문화 적응 등을 훈련시켜 준비된 선교사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는 성경학교, 전도, 구제 등의 활동보다 팀원들이 선교사 후보생의 마음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대화하며, 선교적 영성을 키우는 비전트립 형태로 준비했다. 3박5일 동안 여러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치앙마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족하나마 선교동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재정 원칙이 인상 깊었다. 그들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재정에만 의지해서 사역하는데, 25년 넘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간증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



과천의왕공동체 태국 아웃리치팀원들이 현지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있다.

으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깊이 돌아봤다. 치앙마이에서 중국 목회자 자녀를 중심으로 청년 리더십 양성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중국인 선교사와 만남도 큰 도전이었다. 그 선교사는 "공산당의 핍박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외적 고난이 없더라도 늘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핍박 없는 신앙생활이 축복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더 큰 내면의 전쟁을 치

려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외적 어려움이 없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얀마인들이 예배하는 'Kingdom Church'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렸다.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고국의 복음화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교회 개척 이후 현지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교파에 제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라는 개척 선교사의 고백도 깊은 감동을 남겼다. 치앙마이에 최초로 세워진 'First Church'와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방문했다. 그곳에서 다니엘 맥길브리 선교사의 헌신 덕분에 태국 교회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묘비 앞에서 그들이 뿌린 희생과 헌신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태국 땅이 복음화 되기를 소망했다. 짧았지만 의미 있었던 3일 동안의 여정은 태국을 관광지가 아닌 '아시아 선교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바라보게 했다. 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태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선교의 심장이 분명했다. 더 볼여 사찰 방문, 이발소 체험 등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서 태국이라는 복음의 불모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바라기는 이번처럼 아웃리치를 통한 비전트립 기회가 많아져서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선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와 물질, 시간을 내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상기 팀장
(과천의왕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

필리핀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2년 정도 지내며 가끔 해외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이분들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궁금했지만 막연했다. 궁금증을 마음에만 묻어두고 시간이 흘렀다.

기타를 배우는 동아리 '필그림기타양상발'에서 함께 활동하던 집사님이 내게 해외 아웃리치를 권하셨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결는 질로나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영등포구로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에 아내와 함께 참가했다. 필리핀 아웃리치팀원들은 6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모여 2시간씩 아웃리치 준비와 교육을 받았다. 처음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우리 부부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았고,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것도 낯설었지만,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임했다. 필리핀 성도들에게 나눠줄 여름옷과 물품을 모으고, 어린이용 학용품들을 구입했다. 현지에서 함께 부를 따갈로그어 복음송도 익혔다.

우리가 향한 곳은 필리핀 마닐라 빈민가에 있는 '하나님의벗교회'였다. 정광훈 선교사님과 김경순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는 곳이다.



영등포구로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팀원들이 준비한 특순을 하고 있다.

그곳에는 제1교회부터 제5교회까지 다섯 곳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 모두 빈민가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아웃리치 첫째 날, 3·4·5교회가 연합해서 제3교회에서 '한국·필리핀 연합예배와 음악축제'를 열었다. 예배당 가득 현지어인 성도 200여 명이 모였다. 우리가 부르는 따갈로그어 찬양에 환호와 박수, 폐창으로 화답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예배를 드린 뒤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저녁 도시락, 쌀 2kg, 여름 의류, 어린이 과자를 나눠줬다. 받는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는 우리도

행복함을 느꼈다. 예수님이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다음날 주일예배는 제1교회에서 필리핀 성도와 교민들이 함께 드렸다. 예배드리고 나서는 따갈로그 찬양, 아리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따갈로그 찬양을 부를 때 회중석에서 폐창이 울려 퍼졌고, 마지막 곡 아리랑을 할 때는 교민 성도들이 눈물을 보였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예배 참가자 전원에게 도시락과 쌀, 의류, 과자를 나눠주며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곳 마닐라 빈민가의 성도들이 하루빨리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웃리치 셋째 날에는 마닐라 북쪽 고산지대의 화산 지역, 원주민 아에파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원주민 어린이들과 합창하고 율동했다. 그리고 쌀과 의류, 과자를 선물했다. 아이들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스쳤다.

"나눔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면, 축복이 이렇게 뿌듯하다면, 아웃리치 기간에만 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필리핀에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 작은 일들이 예수님 사랑의 일부라면, 나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실천해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를 단순한 여행이나 봉사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 믿기로 했다. 선교지에서 느낀 사랑과 기쁨을 잊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

황백운 성도
(영등포구로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다!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앞두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왜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중에서 몇 가지는 내 마음 깊숙이 남아 있다. 한 번은 어린 시절을 시설에서 보내고 성인이 된 분의 고백을 들었다.

“저는 18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신고 싶은 신발도 신을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했다. 모든 것이 규칙과 통제 속에 있었고, 사소한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그 생활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다.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있다. 시설에서 막 온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졸려도 울지 않는다고 한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운 듯, 그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밥을 먹고, 졸리면 스스로 잠이 든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 변화가 생기는데 밤 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칭얼대기 시작한다. 그때 위탁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제야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이제야 엄마에게 떼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안도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울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의 증

거이자 회복의 시작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입양연대가 주관하는 ‘국내입양특례법’ 콘퍼런스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생후 9일 된 아기를 생모의 부탁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 그런데 그 아기가 7살이 된 지금까지도 입양허가가 나지 않았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비영리 법인에서 일한다는 이유 등이 걸림돌이 되어 법이 입양을 막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법의 벽은 여전히 높다.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나 역시 입양가족이다. 최근 외손자 중 셋째가 입양되어 딸의 아들이자 나의 손자가 되었다.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다. 사위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아이 셋 모두를 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마음 깊이 감사했다.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삶의 방향과 뿌리를 다르게 내릴 수 있다. 셋째 손주는 예수님 잘 믿는 아버지를 만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의 입양이 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입양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이들에게는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지 못하는 걸까?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태어난다.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양육을 포기해 어머니 혼자 키우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면서 자란다. 우리는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분들을 ‘한부모라 부른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온누리교회에는 ‘맘애편’이라는 사역팀이 있다.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한부모들을 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어떤 부모는 생명을 지켜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어 입양 부모에게 보낸다. 그런 아이들은 훌륭한 입양 부모 밑에서 자라난다. 나는 온누리교회 입양 가정 공동체인 ‘제이홈’을 여러 해 담당하며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하고 배우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들의 헌신은 내 젊은 시절 양육을 돌아보게 했고,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 사랑과 수고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으로 입양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설 양육이 더 낫다는 국가 중심의 사고를 고집한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내 입양이 연간 1,500건이었는데, 지금은 150건에 불과하다. 그 사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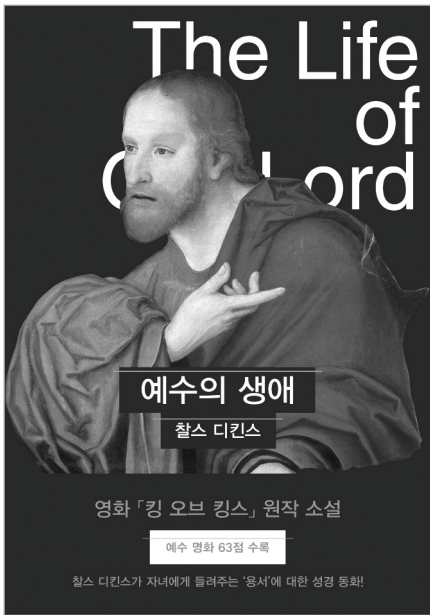
정이 필요한 수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입양되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다면 양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운동(입양, 위탁, 한부모 돌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8월 17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신관 지하2층)에서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한다. 아이들에게 가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사랑받고, 품에 안기고, 이름이 불리며 살아가는 경험은 그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힘이 된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자매,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다. 문을 열고 맞아주는 용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 울고 웃어줄 손길이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아이들을 품기를 소망한다.



정태경 장로
(사회선교본부,
경기A공동체)

기독교 신간 소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영화 「킹 오브 킹스」 원작 소설

예수 영화 63점 수록

찰스 디킨스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왕'에 대한 성경 동화!

《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지 | 민음사 | 15,000원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장성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국내에서도 개봉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출판편집자로서 내 귀에 쏙 들어온 단어는 ‘찰스 디킨스’였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

럴>, <위대한 유산> 같은 영화 원작 소설들을 많이 남긴 빅토리아 시대 대문호 말이다.

이 영화 제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디킨스의 유작 <예수의 생애>를 우리 출판사에서도 당장 기획하고 싶었지만, 고민이 많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이라 벌써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고 있었고, 영화도 곧 개봉할 터였으며, 민음사는 소규모 출판사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팀원은 육아휴직 중이라 혼자 일에 치여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해야 한다는 명분을 찾다가 명화를 잔뜩 넣은 고급 전략으로 차별화된 스테디셀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르네상스부터 라파엘 전파까지 미술사에서 예수님의 삶을 담은 중요한 그림들을 찾아 63점을 편집해 넣었다.

그림을 고르는 동안 장면마다 화가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비교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화가가 성서의 에피소드를 해석하는 관점을 비교하고, 때면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 그렸는지를 살펴보느라 이미 아는 이야기인데도 평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이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에도 종종 같은 장면을 그린 다른 화가의 그림들을 나란히 배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왜 그렇게 내고 싶었을까? 25년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고전문학과 현대소설, 인문학과 논픽션 모든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기획하고 만들어 왔다. 그런데도 뭔가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기독교 서적을 내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한국 출판 시장은 파이가 작아서 경쟁이 심한 분야이고, 편집자들은 시류를 따르느라 뉴에이지 정서, 진화론적 관점, 동성에 코드가 있는 책들을 앞다퉈 출간한다. 편집자는 이런 물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그런데 <예수의 생애>는 세속 출판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내가 이번 아니면 평생 예수님에 대한 책을 언제 또 만들까 싶어서 꼭 출간하고 싶었다.

매출 압박을 받는 일터에서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예수의 생애>는 일이 아니라 휴가 같은 선물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수고 많았으니 몇 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요한복음>으로 박사논문을 쓰신 이해영 목사님(성민교회 담임)은 “<예수의 생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야기’로, 다시 ‘관계’로

복음을 회복하게 한다”고 추천해 주셨다. 영문학을 전공하신 이상준 목사님(1516교회 담임)은 “이 책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추천해 주셨다.

소설 제목이 “The Life of Our Lord”(우리 주님의 공생애)인데, 영화 제목 “King of Kings”(왕 중의 왕)를 보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냐고 묻는 것 같아서 전율을 느꼈다. 내가 하는 걱정 대부분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과 건강으로 수렴된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미리 절망하곤 한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드는 내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너의 주님이 맞느냐는 질문이 맴돌았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 6:34)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근심하는가? 처음에는 조용히 들려오던 말씀이 점점 ‘많은 물소리’(겔 43:2)처럼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양희정 성도
(고양은평공동체,
민음사 편집부장)

맛있는 말씀 해설

“...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스페인 속담에 “Office changes manners”라는 표현이 있다. ‘지위가 매너를 바꾼다’는 뜻으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다. 처음부터 어떤 역할에 충분한 사람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그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점차 그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해나간다는 뜻이다.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5장 13~16절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4)이라며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을 위해 존재한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의 소금채취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13절의 ‘이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스’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사해의 늪 지역에서 채취하거나 암염의 형태였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채취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 ‘이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주적 개념인 ‘코스모스’를 사용하셨다. 빛은 우주를 뚫고 우리에게 온다. 우주는 어떤 곳인가? 공기도, 중력도, 빛도 없는 끝없는 두려움의 공간이자 미지의 공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곳에서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에게 두려움의 영역이 있는가?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소금과 빛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소금은 짠 맛을 낸다. 짜기 때문에 달고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소금 때문에 많은 이들의 생명이 살아난다.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 유일하게 가미할 수 있었던 게 소금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금은 정결함을 의미하고 구별됨을 의미한다. 비록 즐겨 찾지 않을지라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 거룩함을 드러낸다.

둘째, 빛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춘다. 15절에서 ‘비추다’로 사용된 헬라어 표현 ‘뤼케’는 현대에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인 ‘럭스’의 기원이다. 과거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 두 달

밖에 살 수 없는 장애인 부모가 찾아와 “아가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사랑을 알려준다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김재승 목사
(수원서누리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심판 이유, 세대를 거둠한 불순종

8월 18~24일까지
〈에스겔〉 19:1~21:32



역압하는 고관들로 인해 민족이 겪게 되는 상황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명하신다. 암사자가 기른 두 마리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을 삼켰다. 이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갈고리로 꿰어 한 사자는 애굽으로, 다른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으나, 교만함으로 뽕혀 말라 버리고 척박한 땅(바벨론)에 심기는 신세가 되었다.

묵상포인트 2: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세대를 거둠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신 이유는 현재 포로공동체가 그 죄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속된

묵상포인트 1

: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임박한 멸망을 〈애가〉로 말씀하신다. 〈애가〉에 등장하는 암사자는 다윗 왕조를, 두 마리 새끼 사자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아킨을 가리킨다. 교만함으로 백성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을 묵상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 앞에 왔지만, 하나님은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애굽의 우상을 버리라 명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안식일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셔서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에게도 우상을 따르지 말고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부모 세대처럼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아들을 화제로 바치는 등 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실 수 없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크신 능력으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무섭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단련하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다.

묵상포인트 3: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다.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패망하는 이유는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것

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칼을 빼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치실 것이다.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백성과 모든 고관에게 임할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반역하는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하맛 땅 립나에 주둔했다. 그는 암몬의 립바로 가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앞에서 점괘를 보고는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시드기야)을 폐위시키고 암몬을 멸절시킬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한다.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버려야 할 불순종과 따라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점검하자.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안식일 규례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표징이다. 나는 어떤 마음이 집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자. ▶내 마음과 눈이 매혹적인 우상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상과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자. ▶심판이든 축복이든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안*순 성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안*순 성도는 전정성신경염 치료 중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오른쪽 몸 전체의 온도 감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 오른쪽 팔다리에는 타는 것 같은 작열감 지속돼 오랜 시간 침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늘 어지러움을 느끼는 상태이고, 머리카락도 수시로 한 줍씩 빠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 손가락 끝부분은 무언가에 데인 것 같은 먹먹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데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안*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남편 조*동 씨는 서울에서 약 10년 가까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체행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정신적인 질병에도 회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학업 중인 자녀 조민음(가명)은 현재 대학교 3학년으로 ROTC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안전하게 마치도록, 학사 과정을 잘 마치고 로스쿨에 입학할 여건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안*순 성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대전 북누리공동체 성도들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표지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두란노서원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생명의 삶〉표지 사진 공모전에서 총 24점이 당선됐다.

성심교회 전세영 성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온누리교회 이철 장로(우수상), 배태경·홍예빈 성도(가작), 유희문·배정화 성도(입선)가 수상자 중에 포함됐다.

‘오늘, 예수 안에 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980명이 참가해 2,700여 건의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가작 5점, 입선 1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을 준다. 당선작은 〈생명의 삶〉홈페이지(www.durannoqt.com)에 한 달 동안 게시하고, 2026년과 2027년 〈생명의 삶〉표지로 활용한다.

문의: durannoqt@duranno.com



두란노창립 45주년 기념 표지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엘라이프 서빙고 토요오전반 모집

엘라이프 서빙고 토요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1층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엘라이프 서빙고 토요오전반에서는 40일 동안 기쁨, 기도, 감사, 운동, 음식을 주제로 다섯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참가신청은 8월 28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

문의: 02-3215-3532

유튜브 영상스쿨 금요오전반 참가자 모집

유튜브 영상스쿨 금요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강의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7일(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2-3215-3667

여성기도학교 서빙고 목요오전반 참가자 모집

여성기도학교 서빙고 목요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신관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11일(목)까지 아이스쿨과 수요일오전여성예배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3215-3677

8월 화요성령집회 ‘Living the Victory’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본당

8월 화요성령집회가 ‘Living the Victory’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본당에서 열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다.

8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9일 최성민 목사 ‘기도의 방아쇠를 당겨라’ (왕하 19:8-19), 26일 최성민 목사 ‘성령을 따라 살라라’ (롬 8:1-1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 참가자 모집

8월 28일부터 매주 목 오전 9시 30분 온라인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시간 30분 동안 책을 함께 읽고, 역사적·신학적 배경과 단어를 설명하고, 신앙적 통찰을 나누는 형식으로 모임을 한다.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에서

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저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영어책으로 읽는다.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교회사 교수)가 인도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047-0717)로 하면 된다. 회비는 월 7만 원(매월 4회 기준, 첫 주 선납)이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 모집

9월 9일~11월 11일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2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8월 23~24일, 30~31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홍보 테이블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13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010-7228-5798

/ 박지혜 기자

휘튼가스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9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Wheaton Gospel Academy)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목)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는 2년 4학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비는 학기당 250만 원, 온라인 전용 수강하면 200만 원이다. 2명 이상 동반 등록, 2학기 선납, 온누리교회 및 복음과도시 이사교회 소속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에 등록하려면 먼저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휘

튼가스펠아카데미 홈페이지(www.wheatonga.org)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이메일(wheatongospe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는 미국 기독교 명문 사학 휘튼대학교와 사단법인 복음과도시가 함께 만든 신학 교육 기관이다. 한국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의 건전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문의: 02-867-8425

/ 홍하영 기자

영화 ‘무명(無名)’ 복음릴레이 캠페인

1만 원 후원하면 성도 혹은 선교사가 영화 관람

CGN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의 흥행에 발맞춰 복음릴레이 캠페인’을 한다. 영화 관람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성도들과 한인 이주민 성도, 해외 선교사들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후원금 1만 원을 후원하면 1명의 성도 혹은 선교사가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할 수 있다.

복음릴레이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는 후원계좌(하나은행 228-910021-96104(재)온누리선교재단))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입금할 때는 입금자명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야 한다(예: 온누리 851006). 더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

8월 17일 오후 6시 서빙고 시온홀

사회선교본부 산하 제이홉사역팀(입양위탁가정공동체)이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17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입양과 위탁에 관심 있는 예비 입양(위탁) 가정이 대상이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입양 절차, 법적 예비 양부모 자격,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한명애 본부장이

강의한다.

정태경 장로(사회선교본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많은 성도가 이 땅의 고아들에게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에 많은 성도가 참석해서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 기사 4면〉.

문의: 010-9442-6491

/ 홍하영 기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 모집

선착순 24가정 참가신청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4주 동안(1, 2주차 토요일 당일, 3~4주차 토·일 1박2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오후 2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26일(금)까지 전화나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24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40만 원.

자녀를 동반하면 1인당 7만 원이 추가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3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행복’을 매일 누리고, ‘거룩한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문의: 남편 010-4928-0707

아내 010-3340-7039

/ 심예은 기자 y22un@onnuri.org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HEATON
COLLEGE
for Christ in the Kingdom

휘튼대학교

1860년에 설립한 휘튼대학교는 깊이 있는 신학적 전통과 탁월한 학부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이끄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복음주의 글로벌 리더의 산실입니다.

N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O



“건전한 신학, 깊은 신앙, 바른 삶 WGA와 함께 시작하세요!”

WGA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는 휘튼대학교와 복음과도시가 함께 만든 신학 교육 기관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의 건전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WGA 수강생에게만 주어지는 특전

한국 교계 원로 멘토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멘토링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
2025~26년 겨울, 유기성 목사(위지엠, 선한목자교회 원로), 조봉희 목사(서울지구촌교회 원로), 박은조 목사(한동대학교 교목실, 은혜샘물교회 원로)와 함께하는 시간 확정

“휘튼대학교 및 미국 복음주의 교회 탐방”

- 휘튼대학교 총장과의 만남 및 캠퍼스 투어
-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 탐방
- 미국 현지와 연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 제공

1학기 주요 강의

Divine Revelation and the Trinity_Keth Johnson
Creation and the Kingdom_Keth Johnson, Rick Richardson
언약과 하나님 나라_이재훈 목사
바울의 심장소리:사도가 남긴 복음의 정수(로마서)_이인호 목사
교회에 침투한 가짜복음(기독교 이단)_김다위 목사 외

개요

개강.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7시
강의. 매주 목요일 13주간 저녁 7~10시(공휴일 휴강)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간. 2년 4학기
학비. 학기당 2백50만 원(온라인으로만 수강시 2백만 원)

등록금 할인 제도

투게더 5%(두 명 이상 함께 등록)
포워드백 5%(두 학기 선납)
복음과도시 이사 교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안내

7월 10일~8월 25일



유기성 목사



조봉희 목사



박은조 목사

Keith John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Rick Richard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김다위 목사
선한목자교회